

이과생 절반 “인문사회계열로 ‘교차지원’ 의사 있다”

수학 선택과목따라 최고 11점 차이
수험생 10명 중 4명은 ‘재수 고려’
정시전략 상향지원 38%·하향 18%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가운데 과학탐구에 응시한 이른바 ‘이과생’ 중 절반은 대학 인문사회계열로 ‘교차지원’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 지원 시 재수를 염두에 둔 수험생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수능 성적통지표가 나온 이날 8일과 9일 수험생 2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0.5%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된 설문에서는 46.6%가 교차지원을 고려한다고 답했는데, 그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319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1등급 수험생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이 9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3.5%에 불과했다.
통합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에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86.0%, 지난해에는 81.4%였는데 올해는 사실상 1등급을 이들이 점령했다는 게 종로학원의 분석이다. 수학 2등급에서도 미적분·기하 응시자가 71.7%, 3등급에서도 71.4%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학원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수능 선택 과목간 점수차를 분석한 결과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확률과 통계(137점)보다 11점 더 높았다.
지난해 수능에서 미적분 표준점수(145점)와 확률과 통계(142점)의 3점차에 견주면 무려 8점이나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래 가장 큰 점수차다.
이에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표준점수 등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는 이른바 ‘문과침공’이 올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적대별로 살펴보면 1등급대(국·수·탐·영 평

균)에서는 교차지원 의사가 있는 수험생이 41.5%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2등급대에서는 58.8%에 달했다.
정시모집 지원 시 고려하는 전략으로는 상향지원이 38.7%, 적정지원이 43.3%, 하향지원이 18.0%였다.
특히 정시모집 지원 기회 3회 가운데 ‘상향·적정·하향지원을 각 1회씩 하겠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정시모집 지원 과정에서 대입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4%가 그렇다(그렇다 23.0%, 매우 그렇다 17.4%)고 답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운 이른바 ‘불수능’으로 인해 수능 성적 결과에 실망한 수험생들이 일찌감치 재수를 생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수능에서 평소 실력보다 성적이 가장 저조하게 나온 과목으로는 사탐 선택 수험생의 40.7%, 과탐 선택 수험생의 39.7%가 ‘국어’를 꼽았다.
성적 1~4등급대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
2025학년도에도 이러한 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4.7%, ‘매우 그렇다’가 20.2%를 차지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인별 성적통지표가 배부된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광주대동고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대학지원 배치표를 놓고 진학 상담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수험생의 대부분이 2025학년도 수능도 올해처럼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는 얘기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지원은 적정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지원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교차지원의 2~4등급대에서 크게 나타날 것 같다”며 “수험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인의 대학별 지원 유·불리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고, 교차지원의 2~4등급대에서 크게 나타날 것 같다”며 “수험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인의 대학별 지원 유·불리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조선대 김춘성 총장 “전국 최고 지역거점 사립대로 우뚝 설 것”

제 18대 총장 취임식 개최

조선대 제18대 김춘성 총장이 지난 8일 취임했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8일 오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김춘성 제18대 조선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환경 변화 등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총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대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77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창학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역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는 조선대 도시캡 퍼스를 구축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거점 사립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수 이사장은 축사에서 “조선대가 혁신을 통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김춘성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호남 최고의 명문 사학이라는 명성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영돈 전임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법인의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발전에 기여해 공로패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회계세무과 학생들, 한국세무사회 표창 받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회계세무학과 학생들이 2023년 전국 단위 표창을 대거 수상하며 지역 최고 회계·세무 전문화교육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회계세무학과 이수민·한지아(이상 4년) 학생은 2023년 전국 전산세무회계 자격 학업성취 우수자로 선정되어 ‘한국세무사회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김찬엽(4년), 정주호(3년) 학생이 같은 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 외에도 회계세무학과는 전국 회계 및 세무 분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상’과 ERP정보관리사 학업성취도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을 꾸준히 수상했으며, 지난해 박영환 학생이

제59회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조유근 회계세무학과장은 “광주대 회계세무학과는 인공지능 ERP회계, 빅데이터 재무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회계·세무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양성을 위한 준비반을 별도로 운영하며 전공 자격증 취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세무학과는 광주대의 새로운 핵심가치인 기업가정신 구현을 위해 회계·세무·법률 관련 정부위탁 교육사업, 국가공인 자격시험 고사장 유치,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경영지도 사업 등 다양한 독립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세무 통합 비즈



한지아(왼쪽), 이수민 학생. <광주대 제공>
니스 공간인 GU-ATIS(Accounting Tax Integrated Square)를 이달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9~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작은학교 박람회’에 마련된 ‘평화·인권의 날 부스’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평화의 상징’ DJ 정신 알려

DJ센터 ‘작은학교 박람회’서 ‘평화·인권의 날 부스’ 운영

전남교육청이 평화·인권·화해의 상징인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는 교육활동 등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작은학교 박람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공동주관해 열린 이번 교육활동은 ‘작은학교 박람회’를 찾은 시민, 교육가족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역사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장에 마련된 ‘평화·인권의 날 부스’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형상화한 입간판, 퀴즈, 샌드아트 영상물 상영 등이 운영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비롯해 그가 남긴 유명한 어

록을 소개해 정지인 김대중은 물론, 인간 김대중의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 퀴즈 맞추기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다. 그의 삶에 존경을 표하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병국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이번 ‘평화·인권의 날 부스’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과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삶으로서 보여주고자 했던 고귀한 가치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이 평화·인권·화해의 상징인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는 교육활동 등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